

제6회 고성군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 금상 - 간성읍 하리팀

“유쾌한 마음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70·80대 고령 회원 20명으로 구성

“강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즐겁고 유쾌한 마음으로 회원들과 함께 열심히 연습했던 덕분에 이렇게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 9일 고성군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6회 고성군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에서 간성읍 하리팀이 금상을 수상했다.

18개팀이 참가해 다양각색의 체조경연과 함께 축하공연, 경품 추첨, 시상식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경연대회에서 하리팀은 체조부문으로 참가해 관객들에게 큰 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최고 상인 금상을 수상했다.

이날 참가한 팀들은 고성군 생활체육협의회 강사 및 외부강사 9명이 지난 1월부터 9주간 금수

리를 비롯한 18개마을을 순회하며 댄스체조, 스포츠댄스 등 농한기 건강운동교실을 통해 습득한 기량을 마음껏 뽐냈다.

금상을 차지한 하리팀은 2008년에 창단돼 70·80대 고령의 회원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일주일에 2~3회 꾸준한 연습과 대회 한 달을 앞두고는 매일 집중적으로 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성읍 하리팀 안승옥 회장(81세, 여)은 “평소 강사님의 강습대로 꾸준히 운동하다보니 회원들 모두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화합이 잘 이뤄진다”며 “올해 나이가 81살인데 밖에 나가면 제 나이로 보지 않을 정도로 건강체조가 젊음을 유지시켜 주



지난 9일 고성군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6회 고성군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차지한 간성읍 하리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는 비결”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어르신 체조 경연대회는 농한기

노인신체활동으로 행태개선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마을 어르신들도 짧은 기간

이지만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적극적인 호응을 보였다. 원광연 기자

속초해경 대진파출소 이우진 상경

바다 뛰어들어 익수자 구조

항구에서 운동을 하다 바다에 빠진 40대 장애여성을 구조한 속초해양경찰서 소속 전투경찰대원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지난 9일 저녁 8시경 대진항에서 안모씨(47세, 여)가 운동을 하다 그물에 걸려 넘어지면서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씨는 과거 뇌졸중(중풍) 합병증으로 한쪽 눈을 실명한 상태여서 야간에 어두운 항포구 주변을 보기 힘들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행히 인근에 있던 어민이 안씨가 추락하는 것을 보고 속초해경 대진출장소에 신고해 3명이 출동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수영 실력이 뛰어난 전투경찰대원 이우진 상경(22세, 사진)은 신속히 바다에 뛰어들어 익수자 안씨를 구조했다. 구조 후 안씨는 특별한 외상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이우진 상경은 초를 다루는 급박한 상황에서 한치의 망설임 없이 한겨울 얼음장 같은 바다에 뛰어들어 익수자를 구조했다. 이상경은 지난해 삼포해수욕장에서 인명구조요원으로 근무 하며 10여명의 인명을 구조하는 등 전문 구조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우진 상경은 “지금은 비록 군복무기간이지만 장차 해양경찰을 꿈꾸며 전문 인명구조술을 익혀 왔는데, 이번에 소중한 인명을 구조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전역 후 해양경찰공무원으로 합격해 국민들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갖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이상경은 “야간 항포구는 어둡고 어지러운 환경 탓에 그물이나 어로 도구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고 특히 겨울철에는 노면이 미끄러워 추락사고의 위험이 높다”며 “한순간의 부주의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광호 기자

거진의용소방대장·여성대장이 취임식

김양성 제16대 거진의용소방대장 취임

제5대 여성대장에 공영구씨... 최병주 방호부장에 감사장

제16대 거진의용소방대장으로 김양성씨가, 제5대 거진여성소방대장으로 공영구씨가 취임했다.

거진의용소방대와 여성의용소방대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내·외빈 및 소방대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진읍사무소 2층에서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취임식은 15대 김윤기, 여성 4대 조정희 이임대장에게 공로패 전달을 시작으로 최병주 방호부장에게 감사장 수여, 16대 김양성, 여성 5대 공영구 취임대장에게 임명장 및 계급장 수여, 소방기 이양, 남·녀 대장의 이임사, 취임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1989년부터 거진소방대에 입대해 이날로서 퇴임하는 최병주 방호부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순간 대원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15대 김윤기, 여성 4대 조정희 이임대장은 이임사에서 “불철주야 구조, 재난, 화재 예방 및 진압 등 대원들과 함께 해온 지난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간다”며 “취임회장들도 바통을 이어받



지난 13일 거진읍사무소에서 열린 거진의용소방대장 및 여성의용소방대장이 취임식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 거진소방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16대 김양성, 여성 5대 공영구 취임대장은 취임사에서 “전임대장님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관사회와 유기적인 협력을 이루는 가운데 대원들과 함께 헌신·봉사하는 마음자세로 거진소방대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원광연 기자